단독 시공 전환·콘크리트 과잉 투입이 화 불렀나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원인은

홍진건설 모회사 영무토건 법정관리 신청으로 구일건설 단독 시공
설계에도 없던 콘크리트 물량 추가, 빔 접합부 하중 증가 의혹 제기
7차례 설계 변경·공기 연장…시, 안전성보다 공기 단축 강행 논란도

11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장 붕괴현장에서 백경민 서부소방서 현장단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mjna@kwangju.co.kr

광주대표도서관 건설 공사가 애초 2개 사 공동도급 방식에서 단일 시공사로 바뀐 게 공사 기간 연장과 시공 품질 관리에 악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사 과정에서 당초 설계 물량에서 빠져있던 콘크리트가 추가 투입된 것으로 확인돼, 늘어난 콘크리트 무게를 빔 접합부가 견디지 못해 붕괴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구조적 결함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11일 광주시와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는 지난 2017년 시작된 뒤 2022년까지 5년 일정으로 추진됐다. 이어 2026년 5월까지로 연장되면서 공사 기간 만 9년이 걸리는 대형 프로젝트가 됐다. 애초 예산 392억원 규모로 시작됐으나 변경 후 총사업비가 516억 6300만원까지 늘어났으며, 순수 공사비만 219억 5723만 1000원에 달한다.

문제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7차례나 되는 잦은 설계 변경과 공기 연장이 반복되면서 현장의 피로도가 극에 달했다는 점이다.

1차 변경은 가설울타리 변경 및 기존 건축물 철거 누락사항 반영(2022년 9월)이었고, 2차는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및 흙막이(어스앵커) 시공을 위한 부지 대부(2023년 5월) 등으로 이어졌다.

이후 상무소각장 연계 통합계획 반영(2024년 4월), 평판재하시험 적용 및 기초 변경(2025년 3월), 철근이음 공법 변경(2025년 4월), 상무소각장 연계 건축공사 및 시스템 비계 설치(2025년 4월) 등 설계 변경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공사 기간도 엿가락처럼 늘어났다. 1차 공사 기간은 2022년 9월 5일부터 2024년 5월 4일까지였으나, 이후 2차 변경을 통해 2026년 1월 2일로 늘었고 다시 3차 변경을 거쳐 최종 준공일이 2026년 4월 13일로 늦춰졌다.

특히 이번 사고와 관련해 '콘크리트 물량 누락'과 이에 따른 하중 증가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1월 당초 수량산출서에는 데크플레이트 상부의 토핑(Topping) 콘크리트(두께 100mm) 물량만 반영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실제 시공을 위해서는 데크플레이트의 골 부분과 외단부에도 콘크리트를 채워 넣어야 했다. 감리단 확인 결과 콘크리트 물량이 당초 설계 내역에서 빠져 있었고, 이를 뒤늦게 반영해 타설을 진행했다.

시공 체계의 급격한 변화가 이러한 정밀 시공 관리를 어렵게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초 이 공사는 지역 중견 건설사인 홍진건설이 시공 주관사를 맡고 구일건설(구일종합개발)이 공동 수급체(51대 49)로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지난 5월 홍진건설의 모회사인 영무토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공사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광주시는 공사 지연을 막겠다며 지난 6월 5일 관련 부서들로 구성된 '원활 추진 TF'를 긴급 구성했고 시공 주관사인 홍진건설을 공동수급체에서 자진 탈퇴토록 하고 남은 지분을 구일 측이 모두 떠안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2개 사가 분담해 추진키로 했던 대규모 공사를 1개 건설사가 단독으로 수행한 데 따라 책임 시공과 공정 관리, 시공 품질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광주시가 골조 안전성 확보보다 마감 공사 일정을 맞추는 데만 급급해 무리하게 자재 발주를 강행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시는 사고 직전인 이달 초, 현재 공정률이 68.37%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로 예정된 내부 마감공사 추진을 위해 타일과 화장실 칸막이 등 마감용 관급자재 발주를 서둘러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지난 6월 공사 중단 사태로 잃어버린 3개월의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정 속에 자재 투입을 밀어붙인 정황이 보인다"며 "구조적 안전성을 살피기보다 납기 준수라는 행정적 목표 달성에만 매몰돼 현장을 '속도전'으로 내몬 것 아니냐"며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공사도 홍진건설 사태 직후인 지난 6월 13일 공정률 66% 상태에서 일시 정지됐다가 3개월여 만인 9월 25일에야 재개됐다. 불과 3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골조 공사를 마무리하고 바로 마감 공사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독 시공사가 느끼는 압박감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공동 도급사 중 한 곳이 빠지면서 남은 업체가 모든 리스크를 떠안게 된 상황에서, 발주처인 관공서가 정해진 준공 날짜와 자재 납품 기한을 맞추라고 압박하면 현장은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다"며 "특히 골조 하중 계산이 잘못된 상태에서 마감 공기까지 맞추려다 보니 구조적 안전성을 살필 겨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도급순위 311위…시공능력평가 750억원

시공사 구일종합개발은

광주대표도서관 신축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공사인 구일종합개발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구일종합개발은 충남 부여군을 기반으로 한 건설업체로, 1989년 설립됐다.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은 750억여원이다. 도급순위는 311위로 알려졌다.

구일종합개발은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액 700억원 이상~1400억원 미만으로, 3등급 종합건설사로 분류된다. 건축공사의 경우 공사금액 520억원 이상~800억원 미만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수준이다. 평가액만 놓고 보면 공동 시공사였던 홍진건설(시공능력평가액 435억원)보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업체다.

구일종합개발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주로 하천·산림·농수산(31억 8100만원), 택지·용지조성(65억 1400만원), 하수도(19억 3600만원) 등 사업을 수주했으며, 건축 분야에서는 아파트(47억 7600만원), 업무시설(20억 3400만원)을 주로 시공했다.

또 에너지저장·공급시설(104억 3100만원), 화력발전소(21억 69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18억 3300만원) 등의 산업·환경 설비 공사를 주로 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연재 기자 yjyou@

이 대통령 "신속한 구조 최우선"…관계 부처 총력 지원 지시

정치권, 현장상황 파악 즉각대응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권이 광주시 서구 옛 상무소각장 부지 내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 신속한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사고 소식을 접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시작 직후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4명이 매몰된 것으로 보인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와 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당초 농식품부 다음 순서였던 노동부 업무보고를 앞당겨 받으면서 "보고가 끝나는 대로 장관은 광주 현장으로 내려가 상황을 살피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 노동부 주요 관계자들도 사고 수습을 위해 업무보고에서 배석하지 않고 현장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정청래 당대표는 사고 직후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정 대표는 광주시당 차원에서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당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즉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양 위원장은 민주당 광주시장 이름으로 긴급 입장을 내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안전하게 구조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가족들의 불안을 덜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 공유는 물론 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학동·화정동 사고 이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광주시 건설 현장 안전 관리 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신임 광주지검장에 김종우 부천지청장

신임 광주지검장에 김종우(사법연수원 33기·49·사진) 부천지청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11일 대검검사급(검사장) 검사 4명을 신규 보임하고 4명을 전보하는 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 출신인 김 신임 지검장은 세화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해군법무관을 거쳐 2007년 서울서부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그는 검찰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기획·공보통'으로 꼽힌다. 법무부 국제법무과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인권수사자문관), 대검 형사2과장, 대검 정책기획과장 등을 역임했다. 2023년 9월에는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을 맡기도 했다.

김 지검장은 2024년 12월 꾸려진 '검찰 12·3 비상계엄사태 특별수사본부'에서 차장검사를 맡았고, 지난 6월부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에서 일했다. 박현철 광주지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됐다. /유연재 기자 yjyou@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 전남 강진군 칠량면 흥학리 산40-3, 산 43 (추가분묘)
2. 분묘의 기수 : 8기
3. 개장 사유
 -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무연분묘의 처리
 -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재산권 행사
4. 개장 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 안치 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서대산 추모공원
 - 안치 기간 : 봉안 후 5년
6. 공고기간 : 2025년 12월 12일 ~ 2026년 3월 12일 (최초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7. 신고 및 문의처
 - 공고인 : ㈜ 드림일호 대표이사 고봉려
 - 신고처 : 강진토탈장묘 (010-3130-1740)
 - 업무대행 : 강진토탈장묘 (010-3130-1740) 전남 강진군 강진읍 중앙로 130-2
8. 신고시 구비 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 확인서 등
9. 기타사항 : 개장 공고 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공고인 : ㈜ 드림일호 대표이사 고봉려
신고처 : 강진토탈장묘 (010-3130-1740)
전남 강진군 강진읍 중앙로 130-2

光州日報 지국안내

북 구	•동 광 266-1920 •문 흥 266-1960 •북광주 525-3761 •신 안 222-8171 •양 산 571-7658 •오 치 266-7601 •용 봉 433-1503 •우 산 433-1503
동 구	•남 광 673-6836 •동 명 222-9054 •동 부 225-6001 •중 앙 222-9054 •충 장 222-8171
남 구	•남 부 673-6836 •백 운 651-1833 •봉 선 673-6836 •송 하 675-6605 •진 월 671-7276
서 구	•광 천 382-5788 •상 무 372-2352 •서광주 369-1625 •운 천 376-7153 •치 평 376-6511 •풍 암 603-0311 •화 정 369-1625
광산구	•운 남 952-1687 •월 곡 959-1920 •첨 단 973-2900 •하 남 955-0451 •광 산 944-0444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

겨울철 일등보양식
청자골 자라양식장 창업 20주년 특별할인

고단백, 면역력 최고!
자라 엑기스 2개월분
① (12kg + 한약재)
② (12kg + 마늘 생강 대추)
~~70만원~~ → 60만원 (10만원 할인)

자라 요리 전문(단체모임환영)
자라탕·용봉탕 / 방생자라 판매
청자골 자라 양식장 | 061-434-0067 / 010-3635-3362
강진군 성전면 별뫼로 297-52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 출장비용 |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